

고충 처리 현황 <2021년>

순	일 자	관련 기사	요 청	결 과
1	1월 14일	[칼럼]한여름날씨 다한증고민 해결책은? 등 총 4건	기사 삭제(본지 3건, 월드 1건)	삭제 완료
2	2월 1일	혹한 추위에 벗겨진 옷과 1m 간격의 시신... 청* 모녀 의문의 죽음	기사 내용 일부 삭제	일부 삭제 완료
3	2월 3일	'창고에 방치된 고객정보...정신 나간 통신사 하청업체들	기사 삭제	삭제 완료
4	2월 15일	'그들만의 '물징계'... 뇌물·성추행 걸려도 법복 벗으면 끝 [법관징계 리포트]	기사 수정(이름 삭제)	이름 삭제 완료
5	2월 19일	못 들어가겠다"는 학생에 교육 강행... 결국 사망사고 낸 스쿠버 강사들	기사 삭제	삭제 완료
6	3월 26일	檢, 감사관에 '금괴' 배달한 유치원 설립자 조사	기사 삭제	삭제 완료
7	5월 25일	건** 추가조작 및 남편 회사(보*바이오) 관련 기사 삭제 요청	기사 삭제 또는 이름 삭제	총 11개 기사 중 5개 이름 삭제
8	6월 1일	'김**, '간 큰 밀회'... **시청공무원 세 번 놀라	기사 또는 실명 및 사진 삭제	대리인 관계 불분명, 해당 사진 삭제 이유 없음 회신
9	6월 8일	"윤** 둘러싼 학교폭력의 진실을 밝힙니다" 논란 후... 기사 등 5건	기사 또는 사진 삭제	5개 기사+1건 추가 해당 사진 삭제 완료(6/16)
10	6월 9일	"누구나 단기간 고수의 달성"...공정위, 기만광고 3개사 檢 고발	불기소 처분에 따른 기사 정정 요청	경제부 이상규 기자 추후보도 게재(6/13)
11	6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방제 등 재할용 나서	기사 일부 수정	수정 완료(6/22)
12	6월 18일	폭* 색시화보 모바일 유혹 등 2건	기사 또는 실명 삭제	대리인 관계 불분명, 보완 자료 요청(신분증 등) 6/21
13	6월 29일	안** 부인 민** "김**, 남편과 불륜관계 맞다" 김씨 측 "2차 가해" 반발	관련 사진 삭제	수정 완료(7/1)
14	7월 12일	'입는 생리대' 착용샷 논란에... 업체 "성 상품화 아냐" 사과 외 2개 기사	사진 삭제	수정 완료
15	7월13일	"나 일하는 곳 놀러 갈래?" 소개팅 앱으로 만난 女 따라가니..."악단위 분양" 증용	업체명 삭제	업체명 삭제 완료
16	7월15일	[연예on]장**, 토**에 이어 11월 입대 영장...공익근무로 복무	기사 일부 삭제	기사 정정 확인
17	8월5일	2021.7.27(화) 부고	기사 일부 삭제	기사 정정 확인
18	8월26일	"화이자 맞고 모유가 '연녹색'으로 변했다..." 백신 연관성 논란	기사 삭제 또는사진 삭제	기사 정정 확인
19	8월25일	"박**, 버닝썬 연관 조폭과 친분... 뒤 캔다고 연락" 김**, 녹취록 공개했다	기사 즉시 게재 중단 요청	기사삭제 확인
20	9월 29일	- 오** 'ATM 비판' 이유 있었나... 市 위원회 청년단체 '셀프수주' - 서울시 청년부서 임기제 3명 중 1명 '청년단체' 출신	정정보도	수정불가 회신
21	9월 29일	"'میم의 시대'... 용어가 어렵지 은어·속담과 다를 바 없어요"	본인 사진 삭제	삭제 확인
22	9월 29일	"성추행한 여배우에 '2차 가해' 조** 2심서 징역 11월"	정정보도 및 사과문게시 청구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시 불가 회신
23	10월14일	특수학교 여고생, 남자 동급생에 성폭행 당했다"	기사 삭제	삭제불가 신청인 회신
24	10월15일	술자리서 무차별 폭행당하는 여성...동석한 경찰과 남성은 외면	사진 삭제	삭제 완료
25	10월21일	'윤석중 문학상' 신** 시인	사진 삭제	삭제 완료
26	10월25일	*** 가출 초등생 사흘 만에 부모 품으로...강릉행 기차서 발견	기사 삭제	삭제 완료
27	11월8일	"가스 검침원이 강아지 데리고 나갔다가 잃어버려... 전화도 안받는다"	기사 삭제	삭제 완료
28	11월15일	술 취해 장난 치다가 10대 아들 뺨 때린 50대 父 집행유예"	정정 및 반론	기사 삭제 완료
29	11월15일	도로서 놓고 춤추는 초등생들... 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 각별한 지도 필요"	정정 및 사과문	수정불가 회신
30	12월 9일	내 아들 왜 괴롭혀"... 자신의 아들 폭행하는 아이 때린 40대 집행유예	기사 수정	기사삭제 완료
31	12월23일	'미스트*2'장**, 3000만원 성매매 제안 직접부인"거짓임"	기사삭제	기사삭제 완료
32	12월31일	시속 180km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깜빡이 안 켜 덤프트럭에 어깨 절단"	기사삭제	기사삭제 완료